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1분기 미 GDP 성장, 당초 추정치보다 낮아... 소비 지출 둔화
- Bloomberg: 작년보다 미 메트로 지역 3/4에서 실업률 증가
- Bloomberg: 애틀랜타 연준 총재, “금리 인하 올 4분기 가능성 있다”

### [미국 금융]

- WSJ: 미 국채 금리 역전 현상 최장 기록 보여
- Bloomberg: 미 GDP 상승세 둔화에 주가 하락, 국채 상승
- WSJ: 소비자 부채 상환 연체율 여전히 높지만 회복중이다

### [유가]

- Bloomberg : 유가 하락세 ... 미 비축유와 OPEC+ 회의에 트레이더들 주목
- CNBC: 미국 원유, 5월에 3.2% 하락하며 연중 최악의 달 기록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아메리칸 항공, 비즈니스 고객 유치 전략 실패 인정
- WSJ: 코노코필립스, 225억 불에 마라톤 오일 인수 합의 ... 대형 석유 회사 갈수록 커져
- CNBC: 베스트바이, 매출 부진에도 비용 절감으로 수익 보존했다
- Bloomberg: 콜스, 1분기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GDP Growth Was Slower Last Quarter on Soft Consumer Spending**

#### **1분기 미 GDP 성장, 당초 추정치보다 낮아... 소비 지출 둔화**

- 1분기 미 GDP 성장세가 당초 추정치 발표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 다.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고 있다.
-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1.3%로 당초 추정치 1.6%보다 낮은 것으로 연 방 경제분석 수치 결과 밝혀졌다.
-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인 개인 지출도 2.0% 성장률도 당초 추정치 2.5%에 못 미쳤다.
- 경제 모멘텀이 작년에 크게 성장했으나 올해 들어 주춤하는 상황이다. 고 금리에 줄어드는 팬데믹 저축액, 둔화되는 소득 성장 때문에 미국 가계와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 Bloomberg 기사

**Bloomberg: Unemployment Rates Up From Last Year in 78% of US Metro Areas****작년보다 미 메트로 지역 3/4에서 실업률 증가**

- 4월에 미 메트로폴리탄 지역 3/4에서 작년 동월보다 실업률이 상승했다. 연방 통계청의 어제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4월에 미 389개 메트로폴리탄 지역 중에 305개 지역에서 실업률이 상승했다. 56개 지역에서만 실업률이 감소했고, 변동 없는 지역은 28개.
- 구체적으로 메트로 지역 중에 10% 지역에서 실업률이 1% 이상 상승했으며, 51개 메트로 지역 중에 7개 지역에서 미 실업률 3.9%보다 높았다. 라스베가스 5.2%로 가장 높았고, 캘리포니아의 6개 지역도 가장 높은 지역들이다. 아래 도표 참고.

##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s Bostic Says Many Inflation Measures Moving to Target Range****애틀랜타 연준 총재, “금리 인하 올 4분기 가능성 있다”**

- 애틀랜타 연준 총재인 Raphael Bostic는 “팬데믹 때 보여준 폭발적인 가격 압력이 내년으로 가면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애틀랜타 컨퍼런스에서 그는 물론 지난 수년 동안 보여진 큰 가격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인플레이가 둔화되고 노동시장이 천천히 질서 있게 약화된다면 올해 하반기인 4분기에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WSJ: Wall Street's Favorite Recession Indicator Is in a Slump of Its Own**  
**미 국채 금리 역전 현상 최장 기록 보여**

- 미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초과하는 금리 역전 현상은 경기침체가 임박했다는 거의 확실한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과거 미국의 8번의 경기 침체는 금리 역전 현상이 먼저 발생했다.

- 그런데 약 400일 거래일 이상 역전 현상이 벌어졌지만 큰 경제 둔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고용주는 17만5천개의 일자리를 추가했다.
- 만약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금리 역전 지표를 침체를 경고하는 신호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 WSJ 기사

### **Bloomberg: Wall Street Diverges on 'Double-Edged Sword' Data 미 GDP 상승세 둔화에 주가 하락, 국채 상승**

- 오늘 목요일 오전에 발표된 미 GDP 상승세 둔화에 따른 미 경제 모멘텀 하락 신호에 주가는 하락하고, 국채는 상승 중이다.
- 오늘 GDP 발표는 미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여지고 있는데 소비자 지출과 인플레이 모두 둔화되고 있다는 조짐이다. 물론 이에 따라 연준이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지만 미 소비 둔화와 비즈니스 감소에 대한 우려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양날의 칼'.
- S&P500은 5,300 아래에서 거래 중이며 연준의 금리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의 경우 4 베이시스 포인트 낮아진 4.93%에 거래 중이다.

## Bloomberg 기사

### **WSJ: The Rise in Consumers' Late Debt Payments Is Slowing Down 소비자 부채 상환 연체율 여전히 높지만 회복 중이다**

- 자동차 용자, 신용카드, 주택 용자 등의 높은 부채 연체율이 점차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적어도 용자를 30일 이상 갚지 못하는 연체율이 작년에 상승하기 시작했고, 분야에 따라서는 팬데믹 이전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과 소비자들의 팬데믹 저축이 줄어드는 우려가 커졌다.
- 그러나 전반적인 연체율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reditGauge의 월간 데이터에 따르면 30일에서 59일까지 상환이 늦어진 자동차 용자, 신용카드, 주택 및 개인 용자의 연체율이 2월에 1.04%로 높았는데 4월에는 0.86%로 하락했다.

## WSJ 기사

## [유가]

**Bloomberg: Oil Slips Ahead of OPEC+ Meeting and US Inventories Report**  
유가 하락세 ... 미 비축유와 OPEC+ 회의에 트레이더들 주목

- 유가가 하락했다.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5주만에 가장 크게 감소하고 트레이더들이 오는 일요일 OPEC+회의에서 향후 공급에 대한 가이드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유가가 하락한 것이다.
-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전날 거래에서 하락한 후 배럴당 79달러 부근에서 거래되었다.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증시와 함께 유가도 하락했다.
- 한편, 브렌트유는 1월 이후 처음으로 콘탱고 구조(contango structure)로 약화되었다. 약세 콘탱고 모델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풍부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Bloomberg 기사

**CNBC: U.S. crude oil falls 3.2% in May, on pace for worst month of the year**

## 미국 원유, 5월에 3.2% 하락하며 연중 최악의 달 기록

- 목요일에 미국 원유는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올해 최악의 달로 평가된다.
- 미국 원유는 5월에 3.2% 하락하여 12월 이후 최악의 성적을 보였고, 브렌트유도 이번 달에 5% 가까이 하락하여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 지난 한 달 동안 유가는 재고가 안정화되면서 좁은 박스권에서 거래되었다. 하지만 Barclays의 에너지 애널리스트인 Amarpreet Singh는 경제 지표의 약세가 추가적인 하락 위험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CNBC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American Airlines Admits Business Travel Misfire; Shares Drop**  
아메리칸 항공, 비즈니스 고객 유치 전략 실패 인정

- 아메리칸 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즈니스 여행이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업 고객과의 관계에 변화를 시도했다. 이 항공사는 영업 직원을 감축하고 대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채널에서 일부 요금을 없애 고객이 직접 웹사이트나 앱에서 예약하도록 유도했다.

- 그러나 이 전략은 효과가 없었고, 경쟁사들이 1분기 기업 여행 매출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동안 아메리칸 항공은 오히려 사업을 잃었다.
- 수요일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아메리칸 항공 CEO Robert Isom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한 일로 다른 회사들이 이득을 얻었다. 우리는 그것을 되찾을 것이다”고 말했다.

WSJ 기사

### **WSJ: Big Oil Companies Will Just Keep Getting Bigger** 코노코필립스, 225억 불에 마라톤 오일 인수 합의 ... 대형 석유 회사 갈수록 커져

- 지난 수요일, 코노코필립스는 2백25억 달러에 마라톤 오일을 인수하는 거래에 합의했다. 이로 인해 코노코필립스의 시장 가치는 프랑스 석유 대기업 토탈에너지와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 거래는 마라톤 오의 증가에 15%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너무 비싸지도 너무 싸지도 않은 가격으로 평가된다.
- 이번 거래는 혁신적이지는 않지만, 코노코필립스가 마라톤의 성숙한 자산 기반 덕분에 상당한 잉여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 중심의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거래로 평가된다.
- 이 거래는 데본 에너지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그들은 잠재적 인수 대상으로 봤던 마라톤 오일과 크라운록을 경쟁사에 모두 잃었기 때문이다.
- 이는 남은 잠재적 구매자들이 생산 원가가 더 높은 회사들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엑손이나 셰브론과 같은 거대 에너지 기업이 다시 큰 인수 목표를 세우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WSJ 기사

### **CNBC: Best Buy posts another quarter of sluggish consumer electronics demand**

#### **베스트바이, 매출 부진에도 비용 절감으로 수익 보존했다**

- 베스트바이는 목요일 월가의 분기 매출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가전제품 수요 약세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증가하고 비용은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주가는 장 초반에 약 10% 급등했다.
- 베스트바이의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초과했으며, 연간 매출 전망도 그대로 유지됐다. 연간 매출은 4백13억 달러에서 4백26억 달러 사이로 예상되며, 이는 최근 회계연도 매출 4백34억5천만 달러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 CEO Corie Barry는 수익 발표에서 “2024년은 업계가 안정화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자사의 판매 추세가 향후 3분기에 순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CNBC 기사

**Bloomberg: Kohl’s Plunges After Picky Consumers Look Elsewhere for Value**

**콜스, 1분기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 콜스가 1분기 실적에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후 연간 가이드언스를 하향 조정했다. 오픈한 지 1년 이상 된 매장의 ‘비교 매출’은 4.4% 감소하여 9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콜스는 할인을 제공했지만, 재고정리용 상품 판매가 줄어 비교 매출에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 올해 들어 콜스의 주가는 5% 하락했으며, 러셀 1000 지수는 9.7%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이젠 매그니피센트 4'...美주가지수 최고지만 4종목에 의존"**

**"엔비디아, MS, 애플, 알파벳 이달 주가 상승률 시장보다 나아"**

지난해부터 미국 주식시장에서 맹활약해온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중에 셋은 쓰러지고 이제 넷만 남았다.

남은 기업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알파벳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달 뉴욕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들 4개 종목만이 시장보다 나은 상승세를 보였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